

31사단·국립나주병원 '마음안심버스'로 장병 정신건강 챙긴다

정신건강 검사·상담 등 협약

육군 제31보병사단과 국립나주병원(호남권 트라우마센터)은 최근 군장병과 군무원의 마음·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을 맺은 국립나주병원은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개인상담 및 정신건강 검사 결과 설명 ▲스트레스 측정 및 두뇌건강 분석 ▲뇌 컨디션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 등의 서비스를 연간 500여 명의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 트라우마 예방 및 위기 개입을 위한 평가와 심리상담, 군부대 마음돌봄 및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정보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초 국립나주병원이 교통사고 관련 사고자를 포함한 상담희망자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 (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운영, 정신건강 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상담을 받은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아 업무협약으로 이어지게 됐다.



31사단 관계자는 "장병들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장병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정신의학과 진료 여건을 보장하는 등 장병복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자중심 진료... 조선대병원, 스마트병원추진단 구성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사진)이 최근 '스마트병원추진단'을 구성하고 최첨단 AI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조선대병원은 개원 5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 스마트 의료를 선도하는 조선대학교병원'이라는 슬로건을 공개하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새로운 전환점에서 발족한 '스마트병원추진단'은 조선대병원 새병원 건립에 앞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장은 김진웅 의료정보실장(영상의학 과 교수)이 임명됐고,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교수들과 전산팀, 보건의료정보팀,



기획팀 등 관련 부서 직원들로 구성됐다.

조선대병원은 '스마트병원추진단' 활동을 통해 AI기반의 스마트 의료환경 시스템을 갖춰 환자중심 심의 진료를 구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구체적 활동으로 ▲내·외부 연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 설계 ▲위치기반서비스(RTLS) 활용 ▲데이터/영상처리 네트워크 고도화 ▲AI와 IOT를 활용한 업무 최적화 등의 시스템 설치 및 구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정상기업(주), 어린이날 아동시설에 과자세트 전달



정상기업(주)(대표 이정오)은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아동양육시설을 위한 과자세트 전달했다. 정상기업(주)에서 준비한 세트는 2020년부터 아동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거주하는 17개 시설, 400여명에게 전달됐다.

<광주 사랑의열매 제공>

김양반갈비 이정길·김래경 대표 화순 그린리더 1호 위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화순 김양반갈비(대표 이정길, 김래경)가 화순군 그린리더클럽 그린리더 1호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옷 되살림' 성과물 기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병길)은 4월 한달 간 '옷 되살림' 실천활동을 통해 모은 성과물(180kg)을 '한살림광주'에 전달했다.

<사진>

'옷 되살림' 실천활동은 방과후아카데미 푸른꿈둥이(4~6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수강생 등이 적극

적으로 참여했다.

옷을 재사용해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절감,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이번 실천활동은 한살림이 진행하는 파키스탄 빈민가 알카이트 학교 돕기와 지구기후 위기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보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불편해도 괜찮아 4(재)	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재) 30 프린세스 바리(재) 45 팬티하이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생활의 발견 스페셜 2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격렬비열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제51회 KBS배 전국육상대회			00 뉴스브리핑
3	50 만담 다큐 호수인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어쩌다 마주친, 그대	00 PD수첩	00 순안포켓 세상에 이련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00 헛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00 꽃선비 열애사
11	30 KBS 뉴스라인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30 특집 100분토론 <시민이 묻는다 윤석열 정부 1년>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스튜디오 K	55 TV예술무대	30 열린예술무대 뒤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	17:25 미니특공대 브이레전즈(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기 구조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야(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7:00 빅블루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45 뽕뽕뽕 뽕뽕뽕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극한직업
08:00 당동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출동! 슈퍼윙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백두대간에 살아리었다 2부 여우를 기다리는 숲>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50 EBS 다큐프라임
08:50 미니특공대 브이레전즈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2:45 건축탐구 - 집
09:05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	17:00 페파 피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3월 20일 丁卯)

<p>36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48년생 발전의 물꼬를 트는 길사가 발생하리라. 60년생 내 버려 두면 점차로 쇠약해 기력을 다한다. 72년생 삼가는 마음으로 임하면 감천하리라. 84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쓸 만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96년생 맹목적이려면 오류를 낳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6, 56</p>	<p>42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와 접촉하는 판국이 확연하다. 54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66년생 노력을 기울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8년생 황금시대 지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90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줘야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02년생 기다려 왔던 것을 실행해야 할 적기이다. 행운의 숫자 : 03, 93</p>
<p>37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많음을 감안하자. 49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61년생 기차 회생하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다. 73년생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처하였을 때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85년생 결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월하다. 97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99</p>	<p>43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55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67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만함이 사라지리라. 79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91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언행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 03년생 바라던 일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행운의 숫자 : 02, 86</p>
<p>38년생 구유일모요, 천재일우의 호기이다. 50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62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74년생 요인은 따로 있으나 허방 짚지 말아야 하느니라. 86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98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5, 76</p>	<p>44년생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라. 56년생 예견된다면 확실히 회피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잔손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80년생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 반드시 보충해야 할 시기이다. 92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04년생 둘다라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리라. 행운의 숫자 : 29, 75</p>
<p>39년생 높은 산에 올라간 격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51년생 내일의 발전을 위해 오늘의 불만을 감수하자. 63년생 공통적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75년생 분명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87년생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함이 최상이다. 99년생 가끔씩 빨리 정산할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17, 98</p>	<p>45년생 욕심을 버린다면 큰 손해를 면하게 된다. 57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69년생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니 최선을 다하면 되느니라. 81년생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한다. 93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05년생 늦은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5, 96</p>
<p>40년생 파격적인 변화의 추구가 생산성을 도모하리라. 52년생 수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64년생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적응하게 되리라. 76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낳게 한다. 88년생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진행하면서 흥하리라. 00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해두자. 행운의 숫자 : 01, 80</p>	<p>46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58년생 암운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다. 70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82년생 본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94년생 발걸음에 달마져 기우니 걱정부터 앞서리라. 행운의 숫자 : 32, 59</p>
<p>41년생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53년생 과신은 손재를 부르니 둘다라도 두드리고 건너라. 65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77년생 눈앞에 놓여 있어도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성취하느니라. 89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 01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길사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48, 81</p>	<p>47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59년생 범위를 확대시켜야만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느니라. 71년생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느니라. 83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정국을 쥘 수 있다. 95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행운의 숫자 : 39, 77</p>